

연결된 엄마들, 확장된 목소리, 새로운 정치 주체의 탄생*

최서영**

(Stetson University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부교수)

최이숙***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강의전담교수)

이 연구는 최근 페미니즘 리부트의 흐름 속에서 등장한 페미니스트 주체와 미디어에 관한 학술적 관심에서 소외되었던 (기혼) 유자녀 여성들의 페미니즘 실천과 이들의 미디어를 통한 정치 참여에 관해 탐구하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는 활동가 인터뷰, 단체 채팅방 참여 관찰, 언론보도, 서적 등을 바탕으로 ‘정치하는엄마들’이라는 시민 단체의 창립과 활동 과정을 분석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의 참여자들은 스스로를 사회정치적으로 취약한 ‘개인’이 아닌 돌봄 이슈를 의제화하고 그 해결책을 제도화할 수 있는 추진력을 가진 ‘정치하는엄마들’로 규정하면서 사회운동의 동력을 얻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시간과 물리적 기동성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창의적으로 활용했고, 레거시 미디어와 제도 정치의 장 또한 경유해 사회적 논의의 장을 개척하며 새로운 정치 참여의 조건을 만들어 나갔다. 이 연구는 어떻게 다양한 여성들이 사적인 일상과 공적인 제도와 연결된 다양한 미디어 공간을 가로지르고 엮어가며 정치적 행위자로 성장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보여준다.

키워드: 정치하는엄마들, 페미니즘, 페미니스트운동, 디지털미디어, 돌봄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C2A02093389)

** schoi2@stetson.edu, 제1저자

*** socio21@gmail.com, 교신저자

1. 시작하며

이 연구는 2017년 3월 전직 국회의원의 한 칼럼을 계기로 모인 여성들이 어떻게 50일만에 ‘정치하는엄마들’이라는 단체를 창립하고 모성을 재전유하며, 일상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돌봄 이슈를 제기하고 그 해결책을 제도화하는 데 적극적인 정치적인 주체로 거듭날 수 있었는지 탐구한다.

돌봄은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활동으로 2세대 페미니즘의 등장 이후 윤리적 측면에서, 그리고 실천을 구성하는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새롭게 해석되었다. 관련 연구자들이 지적하듯 (예를 들면, Kittay, 1999/2016; Lynch & Walsh, 2009/2016; Tronto, 2013/2014), 관계적 실천으로서의 돌봄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비인간이 상호의존적임을 드러내지만, 현실 속 돌봄은 제공과 수혜의 측면에서 인종/젠더/계급에 따라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왔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림자 노동/부차적인 행위로 규정되는 돌봄은 정치경제영역에서의 인종-젠더-계급의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결과적으로 이를 (재)생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로 작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돌봄 제공과 수혜의 민주적 전환, 또는 상호의존적 자아의 인식과 인간 및 비인간에 대한 윤리적 실천에 근거한 돌봄 사회로의 전환을 실질적인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핵심 지점으로 주장해왔다(김현미, 2020; Lynch & Walsh, 2009/2016; Tronto, 2013/2014). 돌봄을 둘러싼 여러 논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여성주의적) 정치운동에 있어서 ‘돌봄’을 둘러싼 정치 실천 그리고 그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하였다.

이는 어떤 면에서 이러한 현실을 바꾸려는 정치 주체의 부재와 무관치 않다. 한국 현대사에서 엄마들의 당사자 정치가 부재했던 것은 아니지만¹⁾

1) 1970년대 전태일의 분신 이후 노동운동가로 거듭난 이소선 여사, 80년대 민

돌봄의 핵심 의제인 돌봄 제공 및 수혜의 불평등에 대한 당사자들의 정치적 활동은 상대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지난 10년간 저출생, 여성들의 경력 단절, 기혼 유자녀 여성에 대한 혐오 등에 관한 언론보도와 관련 정책이 쏟아졌지만, 이러한 현실을 바꾸려는 당사자들의 아래로부터의 정치적 개입과 실천은 집합적인 수준에서 본격화되지 못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2017년 ‘정치하는엄마들의 창립은 ‘엄마’가 된 여성/양육자들이 스스로의 취약한 사회적 위치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와 내 아이뿐 아니라 모든 인간이 제대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 공적으로 질문하고 정치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한 집단이 한국 사회에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이들은 2017년 7월 노동과 돌봄이 함께 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칼퇴근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자녀 돌봄과 관련된 정책적 변화를 이끌었고(사립 유치원 비리 방지를 위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 개정과 어린이 생명 안전법 제정,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 다양한 캠페인(스쿨미투 지도 만들기 및 법률지원, 성평등한 미디어 공간을 위한 감시활동 등)을 통해 일상 속 돌봄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환기시켰다.

이 글은 ‘정치하는엄마들이 ‘사회적 모성’을 표방하며 돌봄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와 불평등을 공적 영역에서 제기하는 집단이 되어가는 과정

주화운동 당시 자녀 또는 가족을 잃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최근의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산업재해가족피해네트워크 ‘다시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에 이르기까지 가족의 죽음/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에서 시작되어 이후 ‘더이상 우리 아이와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말아야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진 양육자들의 활동은 오랫동안 있어왔다. 디지털 미디어가 확산된 2000년대 이후 미국산 소 수입 당시 유모차 부대 시위 및 현수막 걸기 캠페인,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촉구합시다’의 활동, 그리고 2017년 포항대지진 당시 돌봄주체들의 소셜미디어인 ‘포항맘놀이터’에 이르기까지 나의 아이의 안전이 우리의 안전으로 확대된 사례는 한국 사회에서 계속해서 등장해왔다.

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는 ‘정치하는엄마들’의 참여자들이 어떻게 다양한 미디어 공간을 가로지르면서 스스로의 집합정체성을 구성하고 자신들의 문제 의식을 사회적 의제로 확장하며 성장했는지 질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과의 인터뷰, 핵심 소통채널인 텔레그램에 대한 참여 관찰, ‘정치하는엄마들’ 관련 언론 기사, 이들의 목소리가 담겨진 책 “정치하는엄마들이 이긴다”(정치하는엄마들, 2018)와 성명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상의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페미니즘 리부트 국면에서 다소 간과되었던 (기혼) 유자녀 여성들의 정치적 실천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점이 될 것이다.

2. 기존문헌 검토 및 이론적 논의

1) (기혼) 유자녀 여성의 미디어 이용과 정치 참여

인터넷 이용의 대중화가 시작된 2000년대는 온라인 공간을 활용하는 기혼여성들의 정치적 행위성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시작된 시기이기도 했다. 주부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일상의 경험에 기반한 지식을 생산하고 상호 간의 ‘힘돋우기(empowerment)’를 실천하는 저항적 담론의 장으로 보고 이 안에서의 문화적 실천을 높게 평가한 김수아(2007)는 이 커뮤니티의 참여자들이 기술 활용을 통해 일상생활을 재조직하면서 전통적인 성역할 구분에 도전하거나 여성과 남성 간의 호칭 문제를 제기하는 등 관련 담론을 생산하는 모습에 주목했다. 이와 비슷하게 김예란(2010)은 대형 포털 사이트의 여성 온라인 카페를 참여자들이 일상적 수다와 대화를 통해 사적인 관심사를 공유하거나 시사적 이슈에 대한 대안적 공론을 형

성할 수 있는 '감성 공론장'으로 보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혼여성들이 미디어 이용을 통해 가부장제 젠더 질서의 안 혹은 겉에서 자신들의 행위자성을 발휘하는 문화적 실천을 포착하는 연구는 2010년대 초반까지도 이어졌다. 예를 들면, 이동후(2013)는 '사적 영역의 공적 가시화를 가능케 하는 블로그 활동을 통해 '와이프로그'들이 전통적인 주부 역할을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가진 개인의 정체성을 만드는 양상을 연구했고, 김지희(2014)는 '주부 파워블로거'들이 관계 지향성·수평적 소통보살핌과 같은 가치를 기반으로 여성적 리더십(feminine leadership)과 의견 지도자성(opinion leadership)을 발현하는 것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발견했다.

그러나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을 기반으로 한 가부장제 사회의 성별 분업 구조와 그로부터 파생된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적 노동 관행에 (기혼)유자녀 여성들이 직접적으로 도전하는가에 대해 학자들의 평가는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이었다. 특히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집중된 모성 수행 관련 미디어 이용 연구에서 기혼 여성들은 정치적, 집합적 행위성보다는 개인적 차원의 모성 적용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홍남희(2012)는 초기 모성 수행기 여성들이 사적 영역에서 육아를 전담하는 것으로 인해 물리적 이동과 사회적 교류 욕구의 좌절을 경험하고 스마트폰을 이러한 현실에 대처하기 위한 미디어로써 이용하는 것에 주목했다. 그러나 이 여성들은 스마트폰을 자신의 여가 선용이나 성별 분업 구조의 질서에 저항하기 위한 도구라기보다는 아이를 위한 놀이용 교육용 어플 사용이나 육아 및 가사 정보 검색, 인터넷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동의 경험을 지닌 다른 여성들과의 사회적 교류 등 모성 수행을 보조하고 촉진하는 도구로써 이용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러한 스마트폰 이용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 홍남희(2012, 159쪽)는 "뉴미디어 이용에 능숙

하고 적극적인 젊은 여성들이 모성 수행의 일차적 책임자가 되어 가며 가부장적 질서로 편입되어 가는 과정에서 겪는 갈등과 모순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강혜원·김해원(2018) 또한 유자녀 여성들이 일상의 선택적 공유로 ‘엄마로서의 자신을 재현하는 게시물들을 #맘스타그램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에서 드러내는 현상을 통해 이들이 어떻게 서로의 일상을 모니터링하며 ‘엄마의 일과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지 연구했다. 분석 결과 #맘스타그램은 ‘SNS시대의 육아일기’로 모성 수행에 수반되는 다양한 소비 활동과 돌잔치 등 각종 의례를 스펙타클하게 전시하는 경향과 함께 ‘독박육아’의 피로나 사회적 규범과 자신의 욕망 사이의 갈등 등을 주체적이고 성찰적으로 다루는 자기 서사 실천의 경향을 동시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강혜원·김해원(2018)은 #맘스타그램에서 나타나는 모성 실천은 결국 한국 사회에서 과거로부터 축적된 모성 이데올로기의 현대적 변형 및 변주에 가깝고, 이 과정에서 엄마들의 연결이 갖는 사회적·정치적 힘은 뚜렷하게 발현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위와 같이 (기훈) 유자녀 여성들의 디지털미디어를 경유한 모성 실천에 관한 연구들은 가부장제 젠더 구조에 편입된 여성들이 성별 분업의 질서를 전복시킬 가능성보다는 이들이 디지털 네트워크 접속을 통해 추구하는 실용적이고 정서적인 차원의 활동(육아 정보 공유, 엄마로서 자기 표현, 이에 대한 상호 인정 및 지지)의 의미와 그 정치적 한계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본 연구는 2015년을 전후하여 가시화된 ‘페미니즘 리부트(feminism reboot)(손희정, 2017)의 흐름 속에서 등장한 (기훈) 유자녀 여성들의 좀 더 적극적이고 집합적이며 정치적인 활동에 주목하길 제안한다. 이 중에서도 2019년 서울시 주관 성평등상의 대상 수상자이기도 했던 시

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에 참여한 여성들의 목소리와 활동은 흥미로운데, 이들은 양육과 가사노동 등 사적 영역의 관리자로 호명되지만 돌봄 관련 문제들을 공적 이슈로 만들 수 없었던 여성들의 기존 위치성을 정면으로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생물학적, 희생적 모성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여성을 사적 영역에 가두고, 또 이를 불모로 여성의 노동을 주변화하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이 여성들이 어떻게 재생산 영역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종속과 차별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자 했는지, 이러한 시도가 또한 모성의 해방적 재전유(최이숙, 2020)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살펴볼 것이다. 유자녀 여성들의 여성주의적 실천을 살펴보는 이 연구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저항하는 여성들과 미디어 이용 관계를 주로 살펴온 페미니스트 미디어 연구(김수아, 2018)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기여한다.

2) 미디어와 집합 정체성 형성

집합 정체성(collective identity)은 사회운동에서 개인들의 참여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집합행동(collective action)을 가능하게 하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다. 이 개념은 사회운동의 성공이 동원가능한 자원(resource mobilization)이나 정치적 기회(political opportunity) 등 사회 구조적 변수에 좌우된다는 기존 논의에 만족하지 않은 서구의 신사회운동(New Social Movement) 이론가들이 1980~2000년대에 집중적으로 논의했다(Melucci, 1989, 1995; della Porta & Diani, 2006; Snow, 2001; Taylor & Whitter, 1992). 이들은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공유하는 의미나 정서,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역시 집합행동을 실천하는 집합적 주체(collective subject)를 만드는 중요한 변수라고 보았다. 즉, 사회운동의 형성에 있어 참여자들이 관여하는 해석적이고 문화적이며 구성적인 과정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집합 정체성은 “비슷한 특성과 경험을 지닌 행위자들이 공유하는 우리스러움(we-ness)에 관한 감각”(Snow, 2001, 197쪽), 혹은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공통 관심, 경험, 연대로부터 도출하는 집단에 대한 정의”(Taylor & Whittier, 1992, 105쪽)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사회운동 참여자들이 ‘우리는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라고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논의할 때, 우리는 이를 집합 정체성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델라폴타와 디아니(della Polta & Diani, 2006)는 사회운동 참여자들이 집합 정체성의 형성 과정에서 보이는 행동 메커니즘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으로 설명했다. 첫째, 사회운동 행위자들은 우리의 ‘경계(boundaries)’를 정해야 한다. 공동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모인 ‘우리가 누구인지 정의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될 수 없는 혹은 우리가 반대하고 비판하는 이들에 대한 정의 또한 필요로 한다. 둘째, 사회운동의 참여자들은 여러 시공간에 흩어져 존재하는 집합행동의 경험을 연결하고 종합하는 ‘공동의 의미틀(common frames)’을 가져야 한다. 셋째, 사회운동 행위자들은 복잡한 사회 환경 속에서도 상호 간에 ‘신뢰하는 관계들로 이뤄진 새로운 네트워크(new networks of relationships of trust)’를 형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집합 정체성의 형성은 사회운동 참여자들이 고정불변의 이데올로기적 합의 기반을 가졌느냐보다는 이들에게 ‘우리 집단을 정의하면서 끊임없는 논쟁과 재해석을 실행하는 성찰적 능력(the self-reflexive capacity of a collective subject)’이 있느냐에 달려있다(Bakardjieva, 2016, 984쪽).

위와 같은 집합 정체성에 관한 논의는 최근 ‘연결된 행동(connective action)’, ‘해시태그 액티비즘(hashtag activism)’ 등의 개념에서 보이는 것처럼 현대의 사회운동이 주로 미디어 기술에 의존해 조직화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경향(Bennett & Segerberg, 2012; Castells, 2012; Jackson et al., 2020)을 넘어서려는 일련의 학자들에 의해 재개되었다(Couldry, 2015; Gerbaudo, 2014, Treré,

2015). 이들은 사회운동의 집합성이 개인들의 개별 행위(리트윗 같은 다른 이의 게시물 공유 등)가 소셜 미디어의 알고리즘에 의해 산술적으로 축적된 결과로 형성된다는 식의 기계적 해석을 지양하고, 미디어 기술만이 자기중심적인 개인들을 단결시킬 수 있다는 기술 중심주의적인 관점 또한 경계한다(Gerbaudo, 2014). 그리고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의미, 정서, 정체성 등 사회문화적 차원이 어떻게 미디어 기술과 접합되어 사회운동의 동력이 되는지에 주목한다. 즉, 이들은 미디어 기술을 메시지를 전파하고 운동 참여자들을 상호 연결해 주는 도구적·조직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상징적 차원에서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면, 사회운동에서 사람들이 새로운 용어와 의미, 감정, 상징 등을 표현하고 논쟁하면서 집합 행동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소셜 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Gerbaudo & Treré, 2015).

위 논의 중 우리는 특히 디지털 무대의 앞면과 뒷면(digital frontstage and backstage)을 구분해서 보지는 트레레(Treré, 2015) 제안에 주목한다. 여기서 디지털 무대의 앞면(digital frontstage)은 웹 기반 커뮤니케이션에서 누구나 접근해서 볼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난 공간들(external spaces)을 의미한다. 웹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게시물(살·익명 게시판, 블로그 포스트, 트위터의 트윗, 페이스북의 포스트, 유튜브 비디오 등)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디지털 무대의 뒷면(digital backstage)은 한 사람 혹은 일부 사람들에게만 공개되는 것을 전제로 웹 기반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는 공간들이다. 예를 들면,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의 쪽지(direct messages)나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같은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앱을 통한 개인 간 혹은 그룹 내 대화(chat)가 이에 해당한다. 사회운동의 맥락에서 디지털 무대의 앞면에서는 운동을 대표할 수 있는 다듬어지고 공식적인 메시지가 게시되는 경향이 있지만, 디지털 무대의 뒷면에서는 참여자들의 다듬

어지지 않은 비공식적인 대화와 논쟁들이 오고 갈 수 있다. 트레레는 멕시코 학생들의 요소이132(#YoSoy132) 운동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운동 참여자들이 어떻게 디지털 무대의 앞면이 아닌 뒷면에서 내부 소통의 역동성(internal communicative dynamics)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서로 유대감을 느끼면서 운동의 집합 정체성과 집합행동을 만들어 나갔는지 강조했다.

우리는 디지털 무대의 앞면과 뒷면을 구분하는 트레레의 모델을 수용하는 한편, 이와 동시에 사회운동이 디지털미디어 외에도 언론, 국회, 법원, 경찰, 학교와 같은 사회·정치·행정적 기관이나 제도라는 공공의 무대를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고, 이러한 곳에서의 재현이 운동 행위자들의 디지털 무대에서의 소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를 ‘제도적 무대의 앞면(institutional frontstage)’이라 부르고 이 요인을 이 연구의 분석틀에 포함하려 한다. 실제로 그동안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사회운동 참여자들이 필요에 따라 올드미디어를 포함한 다양한 미디어와 제도적·물리적 공간을 동원할 뿐 아니라, 이 공간들 사이의 역동성과 함께 사회운동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관찰해왔다. 예를 들어, 2011년 이집트 혁명에서의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연구했던 나나브헤이와 파만파마이안의 연구(Nanabhay & Farmanfarmaian, 2011)는 물리적 시위가 벌어지는 거리와 이를 언론인들이 중계하는 매스미디어, 일반인들이 운용하는 소셜 미디어가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증폭된 공론장(amplified public sphere)에서 운동의 참여자들이 어떻게 이러한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커뮤니케이션 생태계를 의식하면서 운동을 가시화했는지 연구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미국의 점거 운동(occupy movement) 등을 관찰했던 게르바우도(Gerbaudo, 2012)는 사회운동가들의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용은 별도의 사이버 세계 구축이 아닌 ‘공공장소의 재전유 프로젝트(a project of re-appropriation of public space)’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분석틀과 연구 방법

1) 분석틀

본 연구는 이상의 이론적 논의에 기대어 ‘정치하는엄마들’의 참여자들이 어떻게 다양한 공개 범위(공적인 front stage, 공동체적인 hybrid stage, 사적인 back stage)를 지닌 여러 종류의 사회적 공간(제도적 공간, 미디어 공간, 일상 공간)을 넘나들며, 집합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소통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행위성을 발휘하는지 살펴본다. 이 때 <그림 1>에서 보이는 분석틀의 사회적 공간은 분석의 편의상 3가지(제도, 미디어, 일상)로 구분되어 있지만, 실제 이 공간들은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 받으며 상호 연결된 관계에 놓여 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둔 엄마가 등하교길에서 만난 자녀의 같은 반 친구 엄마들과 친목 모임을 가진 후, 이 소규모 그룹의 지속적 소통을 위해 카카오톡 방 개설을 할 수도 있고, 법원과 국회에서 아동 학대와 관련한 중요한 판결이 내려지거나 새로운 법이 제정된다면, 이 소식은 신문과 방송 등 레거시 미디어에 보도될 가능성이 크며, (기혼) 유자녀 여성이 새로운 지역에 이사 갔다면 그 지역 기반의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해 그 지역의 정보를 얻으려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말과 글, 정보와 담론은 프론트 스테이지, 하이브리드 스테이지, 백 스테이지 사이를 끊임없이 흐르며 각각의 단위에서 소통을 일으킬 수 있다. 이를테면 미투 운동에 관한 언론 기사는 백 스테이지 혹은 소셜미디어 같은 하이브리드 스테이지에서 대화와 토론을 촉발할 수 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맘충’ 이야기는 혐오 담론의 사례로 언론 기사화되기도 한다.

제도적 공간	미디어 공간	일상 공간
Front Stage: 공적 (공식적 & 재현 중심 소통)		
제도 및 정책 변화 사회 단체 활동	레거시 미디어 (신문, 방송 등) 페이스북 (전체 공개) 웹사이트	
Hybrid Stage: 공동체 중심적 (대화와 재현이 교차하는 소통)		
	페이스북 (초대 기반) 트위터 온라인 커뮤니티 (까페 등)	다양한 규모와 성격의 모임과 공동체 형성과 유지
Back Stage: 사적 (비공식적 & 대화 중심 소통)		
	카카오톡 텔레그램	개인의 삶의 경험 소규모 그룹

<그림 1> 본 연구의 분석틀

최근의 사회운동과 미디어에 대한 논의(예를 들면 Trere, 2015; Jeong & Lee, 2018)가 시사하듯 운동 집단이 만들고 운영하는 디지털미디어 공간과 물리적 공간 내의 활동은 참여자들에게는 일종의 증강된 현실(augmented reality)로 구성된다. 이처럼 이 분석틀 내의 여러 종류의 공간들은 운동의 진행 상황과 맥락에 따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 확장, 축소되면서 변동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델라폴타와 디아니(della Polta & Diani, 2006)가 제시한 집합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보이는 3가지 행동 요인 (우리의 경계[boundaries] 정하기, 집합 행동에 관한 공동의 의미틀[common frames] 만들기, 신뢰하는 관계들로 이뤄진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하기[new networks of relationships of trust])에 유의하면서, ‘정치하는엄마들’의 집합적 정체성이 어떻게 다양한 공간들의 변화하는 역동성과 상호 작용하면서 정치성을 획득하고 변화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2) 연구 방법

‘정치하는엄마들’은 2017년 4월 첫 만남 이후 3차례의 오프라인 만남과 지속적인 온라인 만남을 거쳐 2017년 6월 사회적 모성을 표방하는 단체로 출범하였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이 단체의 회원들(주로 유자녀 여성들)은 ‘양육자’로서 겪는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삶과 아이 돌봄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전방위적으로 제기하였다. 2020년 이후 이 단체의 활동은 이전 시기에 비해 약화되었는데, 이는 팬데믹 기간에 가중된 여성 양육자들의 부담이 이들의 정치참여에 끼친 영향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모든 정치활동의 제약이라는 맥락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의 출범 후 모든 활동을 평가하고 검토하는 것은 제한된 분량 상 적절치 않으므로, 이 글은 인터뷰가 진행되었던 2020년 상반기까지의 시기에 집중해 페미니즘 리부트 맥락에서 (기혼) 유자녀 여성들의 정치주체화와 미디어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이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인 ‘평범한 엄마들이 돌봄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를 발굴하고 모성을 재전유하면서 어떻게 현실의 제도와 불평등을 바꾸는 정치주체가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초창기부터 단체에서 활동했던 회원들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정치하는엄마들’의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연구에 대한 승인 이후 단체의 권리회원²⁾들이 일상적으로 소통하는 텔레그램방(‘열린운영위원회방’)에 연구에 대해 공지한 뒤,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

2) 출범 당시부터 정치하는엄마들의 회원등급은 참여회원과 권리회원으로 구분되었다. 권리회원은 정치하는엄마들에 일정액을 후원하는 회원들로 참여회원과 달리 정치하는엄마들의 운영진에 대한 투표권을 비롯해 운영 전반에 걸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회원이다. 참여회원은 정치하는엄마들의 다양한 소모임이나 온라인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운영진에 대한 투표권 및 제반 의사결정권한은 없는 사람들을 말한다.

다. 그 외에 연구자가 다양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 목소리를 듣고 싶었던 회원들 예를 들면 지역 거주 회원, 온라인 공간 담당자 등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인터뷰는 2020년 5월부터 8월까지 진행하였고, 팬데믹 상황이었던 점, 그리고 인터뷰 참여자들이 다양한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점등을 고려하여 주로 줌(zoom)을 활용한 화상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외 1명의 인터뷰이는 서면으로, 3명의 인터뷰이는 FGI(Focus Group Interview)로 진행하였다. 줌 인터뷰의 경우, 약 1시간 30분~2시간 30분, FGI는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원활한 인터뷰를 위해 인터뷰 질문지는 2~3일 전에 연구참여자들에게 전달되었다. 줌에서 녹화된 내용을 바탕으로 녹취록을 제작하였고, 참여자들의 검토를 거쳐 수정한 뒤 활용하였다. 인터뷰이들이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한 시기와 활동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³⁾ 활동 시기의 경우 ‘정치하는엄마들이 장하나 전 의원의 한겨레 칼럼 ‘엄마정치’의 제안에서 시작된 만큼 단체 창립 준비 과정에서부터 함께 한 회원들, 그리고 창립 이후 다양한 활동 과정에서 단체를 만나게 되어 가입한 회원들로 구분하였다.

<표 1> 인터뷰 참여자의 특성 및 인터뷰 방식

참여자	참여시기	인터뷰 방식	자녀유무
A	창립 준비 과정	zoom	유자녀
B	창립총회	zoom	유자녀
C	창립 준비 과정	zoom	유자녀
D	2018년 강연 프로그램 이후	zoom	유자녀
E	2018년 지역 강연 이후	FGI	유자녀
F	맘카페 강연자리	FGI	유자녀

3) 정치하는엄마들은 회원들 상호간에 나이와 직업, 결혼상태, 거주지 등에 대해서 서로 묻거나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번 인터뷰에서도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았다.

참여자	참여시기	인터뷰 방식	자녀유무
G	창립 준비 과정	FGI	유자녀
H	창립 준비 과정	zoom	유자녀
I	2018년 가을 지인 소개	서면	유자녀

인터뷰 이외에 ‘정치하는엄마들’ 관련 문헌자료(예를 들면 『정치하는엄마들이 이긴다』, 언론보도, 성명서)와 온라인 공간 특히 텔레그램 공간에 대한 참여 관찰을 함께 실시하였다. 다음(Daum)에 연재된 글을 바탕으로 2018년에 발간된 『정치하는엄마들이 이긴다』는 초창기의 단체 결성 과정 및 문제의식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또한 이 연구는 단체 회원들이 활동 과정에서 의제를 발굴하고 상호 소통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종류의 온라인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의 주된 회원들은 디지로그 세대라고 일컬어지는 3040 세대들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의 시작이 장하나 전 의원이 제안한 페이스북 페이지였고, 단체의 회원들은 이후 네이버 카페, 텔레그램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였다. 단체의 활동 과정에서 각각의 온라인 미디어는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정치하는엄마들’에서 회원들 간의 깊은 상호소통과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공간은 텔레그램 공간이다. 연구자 1인이 2018년 상반기부터 온라인 텔레그램 방에 참여하였고, ‘정치하는엄마들’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를 급격하게 증가시킨 활동이었던 ‘사립유치원 비라’가 이슈화되었던 시기(2018년 9월)부터 현재의 열린운영위원회 방을 비롯해 다양한 소모임 방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참여의 경험, 2020년 5월 1일부터 단체 회원들의 승인 하에 1개월 간 집중적으로 관찰한 비를 바탕으로⁴⁾ 텔레그램 공간이 디지털 백스테

4) 정치하는엄마들의 텔레그램에 대한 참여관찰은 단체회원들의 승인을 얻어 진행되었는데, 진행과정에서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은 직접 인용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관찰이 이뤄졌다. 연구자 1인이 오랫동안 ‘참여’관찰하면서 참여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점을 경계하고, 수집한 자료를 보다 성찰적이고 맥락

이지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탐구하였다.

‘정치하는엄마들’의 결성과 그 이후의 활동은 2018년 가을 사립유치원 비리를 이슈화하고 이를 패스트 트랙을 통해 ‘유치원 3법’으로 의제화한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해당 이슈를 주도하면서, ‘정치하는엄마들’의 회원 수가 급증하였고, 재정이 안정화되고 상근활동가가 생기는 등 단체로서 안정되었을 뿐만 아니라(A, B, C), 한국 사회에서 ‘돌봄’ 이슈를 대표하는 단체로 자리매김(최이숙, 2020)하게 되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에 유의하면서, ‘정치하는엄마들’로서의 집합적 정체성의 형성 과정과 그 함의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4. 독박육아의 고립에 저항하는 ‘우리’의 구성

1) 프론트 스테이지와 백 스테이지를 가로지르는 호명과 응답

2017년 3월 25일 한겨레 신문에 실린 전직 국회의원 장하나의 글은 도발적인 제목(엄마들이 정치에 나서야만 ‘독박육아’ 끝장낸다)과 함께 ‘엄마’와 ‘정치’의 조합이라는 기존에 없었던 프레임을 선보이며 ‘장하나의 엄마 정치’ 칼럼 연재의 포문을 열었다. 본인이 양육자로서 느낀 부조리한 육아의 현실과 사회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이 칼럼은 “저와 마음이 통하신다면, 이제 우리 만납시다”라 요청과 함께, 행동의 거점으로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political.mamas>)를 제시했다. 이 칼럼에 대해 훗날 ‘정치하는엄마들’ 창립 당시 공동대표였던 이고은은 “이 말이

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해당 단체 활동 경험이나 활동가들과 라포가 없는 연구자와 공동 분석을 수행하였다.

자신을 호명하는 것 같았다”고 언급했고(이고은, 장하나, 조성실, 2018, 244쪽), 김신애 역시 다스페이스 출연 중 “저 사람은 나고, 나는 저 사람 이야”라는 생각으로 빨려 들어갔다고 회고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확인된 사람들의 소통과 공감은 장하나가 4월 7일 발행된 한겨레 신문의 두 번째 칼럼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제안하는 계기가 되었다. 장 하나는 “제 가슴을 뛰게 만드는 건 ‘엄마 정치를 해보자, 만나자, 달려가겠다’는 엄마들이 진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라며, 4월 22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엄마의 삶 그리고 정치: 독박육아 대 평등 육아>라는 주제로 “나의 삶, 우리의 문제들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다시 보고 정치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자”고 제안했다(장하나, 2017, 4, 7). 전국 각지에서 서울여성플라자로 모인 30-40명의 엄마들은 거의 대부분이 서로 잘 알지 못했음에도 3시간여의 오프라인 모임 이후, ‘정치하는엄마들 준비위원회’를 꾸렸다. 그리고 2017년 5월 13일 2차 모임, 6월 11일 3차 모임이자 창립총회를 거쳐 ‘정치하는엄마들’이라는 비영리단체를 세상에 등장시켰다. 인터뷰 참여자 C는 첫 오프라인 모임을 이렇게 평가했다.

맘카페 보면 그냥 울고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사실 또 그럴까봐 많이 걱정하고 갔었어요. 근데 첫 만남하고 나서 아, 이게 울고 끝나지 않을 거 같은 거예요. 그냥 느낌이 딱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이거 변해야 된다고 의견이 모아지는 걸 보고 아 여기 뭐 하나 저지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두 번째 모임도 갔던 거죠.

페이스북은 개인 이용자들이 지닌 각각의 네트워크와 함께, 크고 작은 공동체들이 그룹의 형태로 포진해 있는 미디어 공간이다. 장 하나는 레거시 미디어가 제공하는 프론트 스테이지에서의 외침을 이에 응답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페이스북이라는 하이브리드 스테이지에 연

결시켰다. 이는 그동안 일상과 맘카페에서 출구 없이 들끓었던 사적 공간의 하소연과 낙담, 우울로 가득한 (기혼) 유자녀 여성들의 정동을 실어 나르는 수송관을 하이브리드 스테이지와 백 스테이지 사이에 개설한 것과 같은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칼럼의 내용에 공감하고, 이제는 좌절의 상태에서 벗어나, 다른 이들과 함께 변화를 위해 행동하고 싶은 사람들은 장하나가 제시한 페이스북 페이지를 방문했고, 댓글을 달고, 이 페이지에 글을 쓰고, 다른 방문자의 글을 읽고, 이 페이지의 글들을 자신의 페이지에 공유하고, 자신의 해석을 더해 소개하면서 ‘엄마 정치’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전파하는데 기여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페이스북의 공유 기능은 이 모임을 향한 열망의 정서를 상호 확인하고 오프라인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인터뷰 참여자 B는 “장하나의 칼럼을 읽었지만, 날 (정치하는엄마들 모임으로) 이끌었던 것은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이 이 칼럼에 대해 긍정적으로 소개하고 평가하고 공유하는 페이스북 포스팅이었다”고 언급했다. 장하나의 칼럼과 ‘정치하는엄마들’ 모임에 대한 피드를 공유하는 개인들이 서로서로 해당 모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었던 것이다. 페이스북 페이지 또한 장하나의 글을 읽으면서 공감했던 사람들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제안된 오프라인 모임에 대한 궁금증을 상호간 메시지를 통해 풀면서 오프라인 모임을 실현시킨 핵심 연결고리였다(인터뷰 참여자 G). 이렇게 半공공적 성격을 띠는 페이스북에서의 거점은 익명의 개인들이 모여 단체 창립이 이뤄진 초기에 참여자들이 페이스북에서 각자가 지닌 신뢰 자원을 동원할 수 있게 했고, 메시지 등을 통한 상호간의 소통을 용이하게 했다. 이 과정은 “신뢰하는 관계들로 이뤄진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della Polta & Diani, 2006, 94쪽)할 수 있었던 첫 ‘오프라인 모임’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의 초기 참여자들은 이 단체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이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스스로 경험한 대중적 소통의 성공 원리를 확장해 적용했다. 즉, 레거시 미디어의 프론트 스테이지에서의 ‘호명’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한 편, 이에 ‘응답’하려는 사람들이 일차적으로 모일 수 있고 개인 블로그/페이지와도 연계되는 하이브리드 스테이지(페이스북, 네이버 카페)와 날 것의 대화와 치열한 토론, 행동 기획을 진행할 수 있는 백 스테이지(텔레그램)를 마련해 상호 연결시킨 것이다. 이러한 의식은 아래의 인터뷰 참여자 C의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텔레그램의 경우에는 조금 더 검증된 회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했었어요 네이버 카페는 1차 검증이 끝났신 분들이 오고, 그래서 페이스북 그룹을 오픈을 시킨 거였거든요. 그건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그래서 페이스북 그룹에서 우리에게 힘을 실어줄 분들이 네이버 카페로 오고, 여기서 정말 활동할 사람들은 텔레그램으로 오는 식으로

이런 차원에서 ‘호명’의 일선에 선 장하나의 ‘엄마 정치’ 한겨레신문 연재는 화제가 된 첫 칼럼 이후로도 약 8개월간 지속되며 ‘정치하는엄마들’의 소식을 공지하고 증계했다. 이에 더해 일부 참여자들은 2017년 7월부터 포털 다음에서 스토리 펀딩을 진행한 뒤, ‘정치하는엄마들’의 창립 과정과 문제의식을 담은 <정치하는엄마가 이긴다>는 제목의 책을 2018년 5월 발간했다. 책이라는 올드 미디어는 레거시 미디어에 신생단체를 소개할 계기를 제공하는 한편, 그와 동시에 지역에 존재하는 여러 모임(맘카페, 지역 책 읽기 모임)에서 저자 간담회 형식의 오프라인 행사를 열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했다.

결과적으로 2017년 6월 11일 창립 이후 6개월간 ‘정치하는엄마들’의 활

동은 레저시 미디어의 공적 무대에 총 53회(전국일간지, 방송사 기준) 노출되었으며, 이는 오래된 여성단체인 여성 민우회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보도 양이다. 단체 창립은 진보지인 경향신문과 한겨레에 보도되었고, 10일 후에 있었던 첫 공식 활동인 칼퇴근법 제정 촉구 및 6월 추경예산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은 중앙일간지와 JTBC 소셜스토리에 방영됐다. 동시에 장하나 전 의원을 비롯해, 조성실, 이고은, 윤정인 등의 초기 운영위원들의 레저시 및 온라인 미디어와의 인터뷰가 지속되었다(경향신문, 2017, 6, 17; 미디어오늘, 2017, 6, 18; 내일신문, 2017, 6, 21; 프레시안, 2017, 7, 7). 창립 당시 권리 회원 34명, 네이버 카페 회원 100여 명 남짓했던 신생 단체가 레저시 미디어에 노출될 수 있었던 것은 장하나라는 전직 국회의원의 제안으로 단체가 결성되었다는 화제성과 함께 당시의 사회적 조건, 조직의 내적 조건이 맞물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인터뷰 참가자 B는 기자 출신 회원들이 많았다는 점, 엄마와 정치라는 이질적 조합의 프레임, 그리고 양육과 돌봄의 문제점을 많은 이들이 의식하고 있는 사회적 조건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일단은 그 뭐 (‘정치하는엄마들’이라는) 이름값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 초창기에 제가 창립총회 처음 갔을 때 느꼈던 분위기처럼 모두가 생각하고 있던 문제점이었어요 (중략) 이걸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알고 있었고, 바꿔야 하는데 바꾸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응집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분위기는 이미 충분했던 것 같아요 (중략) 그냥 그 문제의식이 언론환경에 있는 분들한테도 더 깔려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냥 지원받았던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단체가 있네’, ‘내가 계속 생각했던 부분인데 드디어 이야기를 하네라고 해서 언론에 있던 엄마들, 여성들이 아니어도 육아 문제에 대해서 힘들어하던 분들의 지원도 초반에는 무시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레거시 미디어의 활용과 노출은 이 기사들이 공유된 페이스북 페이지 및 포털과 언론사의 SNS와 YouTube 등을 통해 이 이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회원 또는 활동가로 모으는 계기가 되었다. 다른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던 인터뷰 참여자 D는 자신이 ‘정치하는엄마들’ 회원이 된 동기 중 하나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단체에서 여는 기자회견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보고 활동 방식을 배우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치하는엄마들’ 네이버 카페에는 “2017년 6월 국회 앞에서 있었던 칼퇴근법 관련 기자회견 보도를 보고 카페에 가입하고 단체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게시글이 함께 올라왔다. 2018년에도 레거시 미디어는 회원 수 및 영향력 확장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18년 10월 연구자가 지역의 오프 모임에서 만난 한 회원은 SBS스페셜의 ‘앵그리맘의 반격(2018년 5월 13일 방영)’을 시청하고 가입하게 되었다고 언급했으며, 인터뷰 참가자 G는 이 프로그램 방영 후 회원 수가 증가했다고 회고했다. 인터뷰 참가자 E, F, I와 같은 신생회원들이 새롭게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면서 정치하는엄마들은 창립 1년 만에 회원 수는 100명(관리회원 기준)을 넘었다.

2) “돌봄을 수행하는 모든 이들이 엄마”: 실천으로서의 모성, 돌봄의 사회화

사적 영역에서 돌봄을 수행하며 느끼는 고립에 저항하며 ‘정치하는엄마들’이라는 호명에 응답한 참여자들은 함께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우리’를 정의하고 그 경계(boundaries)를 정해야 했다. 이는 참여자들이 ‘우리는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모였으며,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왜 할 것인가’에 대해 분명히 공유하는 의미나 정서가 있을 때, 이러한 집합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집합 행동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의 프론

트 스테이지 중 하나인 홈페이지에 있는 소개글(“아름다운 ‘엄마 노릇’이 가능한 사회를 꿈꿉니다”)⁵⁾은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엄마들의 이런 고통은 우리 사회 구조의 각종 불합리와 모순에 따른 공적인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임신, 출산, 육아로 이어지는 인간의 생애 주기적 과제를 오로지 ‘여성의 사적인 일로만 규정하고 가두는 데서 오는 억압과 착취의 산물입니다. (중략) ‘정치하는엄마들은 엄마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엄마들의 정치세력화를 도모하고 ▲모든 엄마가 차별받지 않는 성 평등 사회 ▲모든 아이가 사람답게 사는 복지 사회 ▲모든 생명이 폭력없이 공존하는 평화 사회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옹호하는 생태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꼭 아이를 출산한 생물학적 엄마만의 단체가 아닙니다.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등 돌봄을 수행하고 있거나 향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양육의 주체를 아우르는 ‘사회적 모성’이 바로 ‘정치하는엄마들의 주인 공입니다.

사실 모성의 경계를 여성의 생물학적 몸과 출산의 경험에 귀속시키지 않고, 양육의 경험과 실천에 두려는 ‘양육적 모성’ 논리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 빈번하게 등장하기 시작한 모성의 사유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최은영,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으로서의 모성, 돌봄의 사회화를 양대 축으로 한 ‘사회적 모성’을 위와 같이 공식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정치하는엄마들의 행동은 정치적 행위성 차원에서 볼 때, ‘토로’에 그쳤던 기존의 (기혼) 유자녀 여성들의 문화적 실천을 넘어선다. 이는 일상 속 나와 아이들의 문제를 간과하고 돌봄을 둘러싼

5) <https://www.politicalmamas.kr/post/142>

다층적인 불평등에 저항하는 집합적 주체의 등장을 의미한다. 또한 이들은 돌봄의 윤리가 갖는 정치적 가능성을 의식하고 인간과 비인간이 모두 존중 받고 공생하는 사회를 지향함을 천명했다. 생물학적 모성에 대한 가부장적 인식과 그에 대한 문화적 재현이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건재하고(정영희, 2020), 이에 더해 돌봄 노동의 상품화에 따른 돌봄 제공의 젠더화/인종화/계급화, 돌봄 수혜의 불평등이 점차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의 ‘사회적 모성’을 향한 도전과 실천, 돌봄 중심사회를 향한 모색이 갖는 의미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물학적 여성의 출산 여부를 떠나 양육/돌봄을 제공하는 이라면 누구나 ‘엄마가 되는’ 정치하는엄마들에서는 양육에 참여하는 아빠와 아이들의 삶을 책임지는 비혼 역시 ‘사회적 모성’ 실천의 주체가 된다. 이러한 ‘정치하는엄마들’이라는 새로운 집합적 정체성은 아빠/할머니/할아버지 참여자들 혹은 돌봄 이슈에 관심 있는 비혼 참여자들이 단체 홍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JTBC 소셜스토리, 2017, 6, 22⁶⁾; ‘정치하는엄마들’ 유튜브 채널의 비혼특집, 2020, 7, 7⁷⁾)에서도 드러난다. 동시에 돌봄의 윤리가 지향하는 상호존중의 문화는 이들이 나이, 성별, 사회적 직책과 상관없이 서로를 부르는 ‘언니’라는 호칭을 통해 강화되었다. 호칭에 영킨 서열과 위계, 차별과 배제의 논리를 넘어서려는 이러한 노력은 참여자들이 서로를 평등한 위치에서 대하고, 이에 기반해 서로를 신뢰하고 함께 행동하는 것을 더욱 가능하게 했다. <정치하는 엄마가 이긴다> 책의 저자들은 이 호칭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71-72쪽).

우리는 나이가 많건 적건, 남자건 여자건, 서로를 언니라 부르기로 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예전보다 서로를 부르는 데 주저함이 없어지

6) <https://www.youtube.com/watch?v=cjmHe-Om5DU>

7) https://www.youtube.com/watch?v=8MrvEoyKN_I

고 관계 맺기의 어려움이 벌어지는 경험을 하기 시작했다. (중략) 형식은 내용을 규정한다. 우리는 애초부터 서로를 언니라 부르며 동등한 위치에서 관계 맺기를 시작하고 약속했다. (중략) ‘언니의 정서는 정치하는엄마들의 민주주의를 잘 보여준다. (중략) 누군가 아이를 키우면서 겪은 불합리를 하소연하듯 털어놓으면, 하나둘 이야기를 보태고 의견을 더해 사회적 이슈로 확장시키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이것이 정치하는엄마들의 더 큰 가능성을 말해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사회적 모성과 돌봄 중심 사회에 대한 정치하는엄마들의 비전 및 ‘언니 호칭에서 배어오는 상호 존중 문화가 참여자들을 끌어당기는 요인(pull factor)이었다면, ‘정치적인 여성에 대한 한국 사회 전반의 배척, 주변화, 억압이 가득한 사회문화적 조건은 참여자들을 정치하는엄마들로 밀어내는 요인(push factor)이었다. 참여자들이 정치하는엄마들의 공간을 마치 ‘오아시스’ 혹은 ‘피난처’처럼 여기게 된 데는 <82년생 김지영>에 대한 사회적 백래시가 상징하듯, 이들이 자신의 삶의 조건과 공동체의 중요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낼 때마다 부딪쳤던 주변의 반응(“예민하다, 유난스럽다. 잘난 척 한다”)에서 받았던 상처와 자기 검열의 경험이 있었다(인터뷰 참여자 B, E). 정치하는엄마들에 오면서 이들은 “내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검열하지 않고”(E),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B)고 만족감을 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돌봄을 둘러싼 여러 이슈에 공적 목소리를 내기 힘든 현실에 비판적이었던 소수자들이 함께 모여 개입하며 시작되었다. 이들은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경계들(boundaries)을 설정했고, ‘일상 속 하소연의 사회적 이슈화’와 같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공동의 의미들(common frames)을 만들었고, 서로 존중하고 지지하고 신뢰하는 관계(relationships)를 형성했다. 이러한 성격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참여자들은 과거의 자기검열과 억압, 위축됨의 경험에서 벗어나 함께 목소리를 내며 성

장하는 경험을 하나씩 쌓아 나갔다. 이렇게 ‘우리’를 만들고, 우리의 ‘집합 행동’을 통해 ‘자산’을 재정의하는 해방의 과정은 참여자들이 다양한 미디어와 제도, 일상의 공간들을 넘나드는 과정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다음 장에서는 정치하는엄마들이 어떻게 온라인의 ‘악플 공격 및 신상 노출의 위협을 피해가면서 ‘사회적 모상’을 향한 집합행동을 실천했는지 살펴본다.

5. 일상 속 돌봄을 공적 무대에 올리는 “참지 않는 언니들”

1) 디지털 뒷무대이자 기획 본부로서의 텔레그램

단체 창립 후 ‘정치하는엄마들’이 주로 활용한 플랫폼은 페이스북 페이지, 네이버 카페, 텔레그램이었다. 단체의 온라인 공간을 관리했던 C가 앞서 말했듯, 단체가 시작됐던 페이스북 페이지가 완전히 공개된 공간이었다면, 네이버 카페는 조금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접근성에 제한이 있는 공간이고, 텔레그램은 단체 활동에 관여도가 가장 높은 사람들이 모이고 접근성 제한도 가장 큰 곳이다.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은 오프라인 모임이나 네이버 카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좀 더 일상적으로 다른 참여자들과 소통하고 싶을 때 전화번호를 남기면서 초대를 요청하고 관리자의 허락을 받으면 접근할 수 있었다. 여기서 단체 창립준비 및 활동 조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공간은 “역사는 텔방에서 쓰인다”(강미정, 임아영, 2018, 30쪽) 언급이 시사하듯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이었다.⁸⁾

왜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카페가 아닌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이 이들의

8) 정치하는엄마들이 이긴다에 의하면, 한국인들이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카카오톡이 아니라 텔레그램을 소통의 플랫폼으로 선택한 이유는 ‘보안상의 이유’였다(강미정·임아영, 2018).

집합행동 조직을 위한 주요 소통 통로가 되었을까? 단체 창립 당시 해외 체류 중이었던 G는 가장 큰 이유로 텔레그램의 어포던스와 모임에 필요한 소통 방식 사이의 호환성을 지적했다.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카페에 글 쓰고 댓글 다는 것이 텔레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편했다는 것이다. 즉 텔레그램과 같은 인스턴트 메시지 서비스가 갖는 편리함, 일상성, 즉각성은 스마트폰 이용이 일상화된 한국에서 사람들이 빠르게 소통하고 의사 결정을 내리기에 최적화된 플랫폼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텔레그램으로의 접근이 여러 단계를 거쳐 이뤄졌던 점을 고려할 때, 단체 채팅방 참여 회원들의 경우 페이스북 페이지의 구독자나 네이버 카페 회원들에 비해 세상에 개입하고 싸우는 ‘정치하는엄마들’이라는 정체성을 강하게 공유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들이 결합되면서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은 상대적으로 공개된 두 온라인 플랫폼(페이스북 페이지, 네이버 카페)을 관리하고, 공개적인 단체 활동을 기획하고, 비공개적인 대화와 토론을 수행하는 디지털 뒷무대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텔레그램은 트레레(Tréce, 2015)가 언급한 디지털 뒷무대의 역동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회원들의 멘션으로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 쌓이는 메시지 개수는 순식간에 수백 개에 이르렀다(강미정, 임아영, 2018). 그래서 회원들은 텔레그램 방에 처음 들어온 사람에게 알림을 꺼두라고 충고하기도 한다. 강미정과 임아영(2018)의 평가처럼 일상과 낭만, 정치가 공존하는 곳이 텔레그램이었고, 일상에서 느끼는 문제들이 다시 공적인 방식으로 논의되는 곳이기도 했다. “일상의 언어와 정치의 언어가 뒤섞이고, 재미와 공감을 느끼다가 의식화와 행동으로 이어지는 공간”(강미정, 임아영, 2018, 27쪽)으로서의 텔레그램은 여성들의 온라인 정치활동에서 발견되는 ‘감성공론장’으로서의 면모가 가장 두드러진 곳이기도 하다. 일상의 경험이 유사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A는 초기

텔레그램 방의 대화가 “너무 재미있었다”고 회고했다.

집합행동의 조직 차원에서 볼 때,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은 단체의 자원을 끌어내고, 의제를 논의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공간이었다. 양육자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전통적인 사회운동 조직에서 수행했던 기자회견과 같은 오프라인 이벤트를 개최하기 쉽지 않았음에도, 단체 창립 후 첫 6개월 간 3차례의 기자회견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소위 ‘집단 모성’의 방식으로 명명되는 ‘이어달리기’를 통해 조직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했기 때문이다.

플래카드 만들 때도 뭐 어떻게 만들지 모르는데 ‘누구 하실 분?’ 이렇게 하면은 누가 ‘저 사실 경력 단절녀 되기 전에 홍보회사에서 일했어요’하면서 포스터를 딱 만들고 ‘근데 지금 애 데리러 가야 돼요. 누가 이거 인쇄소에 맡겨주세요’ 하면 그 사람이 던지고, 또 누가 그 다음에 찾으러 가고 약간 이런 방식으로 했고(2018, 10, 26. 김어준 다스퇴이더 방송 중 조성실 발언).

소위 ‘시간 거자인 엄마들이 오프라인 모임과 기획 강연, 그리고 기자회견과 보도 논평 발표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자원 동원 방식 덕분이었고, 이는 텔레그램을 통해 이들이 항시 연결되어 있기에 가능했다.

동시에 일상 속에서 문제적으로 여기는 이슈를 텔레그램에서 논의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시의적으로 적절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참여자들이 상호 지휘하는 공간도 백스테이지였다. 일례로 2017년 7월 25일에 발표된 “유아교육, 보육은 비즈니스가 아니다”라는 성명서⁹⁾는 서울시 교육청 주최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관련 세미나가 사립 유치원 원장들의 모임인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무력에 의해 무산된 사건을 목격한 회원들이 먼저 현장에서 성명서 초안을 작성하였고, 이를

9) 이 성명서의 작성 과정에 대해서는 김신애·백운희(2018) 94~96쪽 참고.

텔레그램에서 ‘이어달리기’를 통해 수정/논의/완성하면서 발표된 것이었다. 디지털 뒷무대에서 경험한 이러한 역동성은 단체 회원들에게 이 신생 단체에 대한 신뢰를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네 그니깐 현장 성명 냈을 때. 그때였어요. ‘아 이렇게 기민하게 활동할 수 있구나.’ 그니까 거기서 어떤 문제를 느끼고 거기서 바로 분노하고 거기서 그 정말 되지 않은 자원으로 바로 성명을 넘기고 그걸 또 받아서 자료로 낼 생각을 하고 의사를 결정하고, 처음 보는 모습이었던 거죠. 이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그니깐 문제를 인식하는 것들도 사실 쉽지 않지만. 문제를 인식했을 때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결정해서 결과물을 내고 그 결과물을 또 어떻게 반영해 가고, 일이 딱딱 진행되는 것이 저한테는 무척 새로웠던 것 같아요. 아 여기 정말 다르다. 내가 만일에 의지를 갖고 뭔가를 문제제기하면 이것이 논리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면 당연히 되겠구나, 할 수 있는 구조 구나를 느꼈던 것 같아요. (인터뷰 참여자 B)

동시에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등 제도적 공적 무대에서 이뤄진 성과들이 공유됨으로써, 텔레그램은 가장 먼저 조직의 활동을 평가하고 활동이 지속되고 있음을 실시간으로 느낄 수 있는 장으로 기능했다. 24시간 지속되는 상호작용은 자신과 함께 싸우며, 모성 신화를 넘어 돌봄의 정치를 수행하고 자신의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존재들을 끊임없이 서로 연결하고 확인시켜주면서 단체의 활동을 지속시키는 핵심적인 공간이었다.

2)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정치하는엄마들의 성장과 텔레그램의 분화

재정과 인력난 및 경험 부족과 같은 ‘정치하는엄마들이 신생 단체로서

초기에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2018년 가을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한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문제를 이들이 제기하면서부터였다. 사립 유치원 비리는 초창기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이 관심을 가졌던 여러 보육 이슈 중 하나였다(인터뷰 참여자 O). 다스피이더에 출연했던 김신애에 의하면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이 심야에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이 이슈를 ‘파보기’로 결정하고, 각 시도 교육청이 실시한 유치원 감사에서 적발된 유치원의 이름과 비리 내용에 관한 정보 공개를 2017년 12월 청구하면서 시작되었다. 정보 공개 청구가 대부분의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무시당하자, 이들은 2018년 5월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며 국무조정실과 인천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7월에 국무조정실로부터 그 명단을 받을 수 있었다.

1차적으로 이 이슈는 백스테이지에서의 일상적인 대화가 단체의 의제가 되고,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개입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의 공적 무대와 제도적 차원의 공적 무대인 정당, 국회 내에서의 협업이 사회적 의제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018년 가을 회계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의 명단을 언론에 공개했고, MBC를 비롯한 언론의 연속보도가 이어졌다. 또한 그 해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실과의 협업을 통해 그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면서 사립유치원 비리는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하였다(한겨레, 2018, 10, 20). 나의 아이를 돌보고 교육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양육자들이 가졌던 의문이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고조되면서,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정책적으로 관리/규제하기 위한 유치원 3법은 12월 패스트트랙에 상정되었다. 그리고 2020년 1월 그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슈가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2018년 10월부터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되었던 2018년 12월까지 ‘정치하는엄마들’에 대한 기사는 총 194건

으로(중앙지와 방송사 기준) 여론의 관심과 응원을 얻어나갔다. 그뿐 아니라 ‘정치하는엄마들’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 당사자 중 하나가 아니라 사립 유치원의 반대편에 있는 “테이블 위의 협상 대상자”(C)이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행위자로 부상했다.

레거시 미디어에의 빈번한 노출, 제기된 이슈의 법제화 및 제도개선을 일군 것에 대해 C는 “벤처로 따지면 기술이전 하나 한 거”와 같다고 평가하였다. 단체의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회원 수가 3배 이상 늘었는데¹⁰⁾, 이는 단체가 이슈를 제기하고 집합행동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수준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1년 동안 상근자와 사무실이 없었던 ‘정치하는엄마들’이 이 사건을 겪으면서 사무국 상근자 2명을 둘 수 있었고, 서울NPO에 공용 사무실도 마련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이제까지 완전히 특이하게 운영되던 단체에서 활동이 조금 더 체계화되고 “시민단체와 비슷”(D)해졌다. 또한 ‘정치하는엄마들’이 ‘내 아이의 문제’가 아닌 ‘우리 아이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단체로 사회적으로 각인되면서, ‘정치하는엄마들’은 창립 1년 만에 그동안 간과되었던 한국 사회의 다양한 돌봄 이슈를 의제화하는 단체로 부상했다. 집합행동을 조직할 수 있는 실질적 자원과 제도적 기반(사무국)이 마련되고, 국회의 일정(예산안 심의, 정기 국회 등)을 고려해 정책 입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2019년~2020년 상반기까지 스쿨 미투 지도 발표와 교육청을 상대로 한 소송, 어린이 생명안전법의 제정, 급식비 인상 등의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 냈다. 2018년 가을 이후 ‘정치

10) 국민일보(2018, 12, 28)에 따르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 공개했을 당시 정치하는엄마들 회원 수는 500명 수준이었지만,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페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다음 날인 28일 회원 규모는 1600명을 넘겼다. 당시 회원 관리를 담당한 C는 “김어준 방송이 나가고 그 다음 날 저희가 600명을 찍었어요. 그 1주일 동안 이제 하루에 한 100명씩 오는 거예요. (중략) 그것도 막 절반 정도가 다 권리회원(하락)”이라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하는엄마들의 제도적, 공적 가시화는 그동안 개인의 이슈로만 치부되었던 ‘돌봄’을 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설정하게 했고,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를 담당하는 주요한 플랫폼 혹은 대변인으로 위치하게 되었다(최이숙, 2020).

제도적 미디어 공간 및 정치 공간에서 ‘정치하는엄마들’의 인지도가 증가하고, 회원수가 증가하면서 디지털 공간에 진입하는 사람들의 수 역시 늘어났다. ‘정치하는엄마들’의 창립, 그리고 초기 1년 동안 단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소통할 수 있는 핵심 공간이었던 텔레그램에도 변화가 있었다. 특히, 100명 정도의 회원들이 소통하던 텔레그램은 한 번의 해체를 겪었다. 사립유치원 비리가 이슈화되면서 텔레그램에서 논의했던 내용들이 “자꾸 새어나가는” 일이 벌어지면서(C), 전체 회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던 공간은 ‘폭파’되었고, 텔레그램 공간은 권리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운영위원회 공간과 다양한 소모임 방으로 분화되었다(B, C). 소모임은 관심사가 있는 회원들이 모여 자율적으로 생성할 수 있지만 단체의 공식 소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활동 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2020년 상반기에도 성평등 이슈에 관심 있는 회원들이 개설한 ‘모두를 위한 평등’과 팬데믹 시기 빈번해진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아동학대방자’ 소모임이 새로이 개설되었다. 네이버 카페 역시 다양한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사립유치원 비리 이슈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의 이야기를 했다가 피해를 보는 회원들이 생기기도 했다. 카페 공간에 대한 관리가 쉽지 않아지면서, ‘정치하는엄마들’은 2020년 2월 카페에서의 활동을 공식적인 공지 외에는 사실상 동결했다. 단체에서 가장 오픈된 공간인 페이스북 페이지와 페이스북 그룹의 경우, 해당 그룹/페이지에 가입된 사람들이면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특정 정치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공간을 소위 ‘도배’하기도 했다.

다른 공간에 비해 보다 걸리진 사람들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방 역시 단체 인지도가 올라가고 다양한 사람들이 회원으로 유입되면서 참여자들은 더 이상 이 곳을 서로 자유로이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할 수 없게 되었다. H는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 중 가장 큰 공간인 열린운영위원회 방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기 조심스럽다고 말했고, 대신 자신이 활발히 활동하는 소모임 방에서 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고 했다. 인터뷰 당시 운영위원이었던 A 역시 이전에 비해 회원 수가 늘어나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졌다고 토로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H)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했기에 그러한 성격이 강한 텔레그램의 열린운영위원회 방의 대화는 공적 사안(선거, 학교 돌봄, 성폭력 사건 등)에 집중되었고, 일상의 경험(아이와의 갈등, 좋아하는 공연정보)에 관한 대화는 소모임에서 이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생활을 공유하고,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었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A, B, H), 소모임 활동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이러한 아쉬움을 해소한다고 언급했다(H).

초기 ‘정치하는엄마들’ 운영의 디지털 뒷무대이자 헤드쿼터로서의 텔레그램의 변화가 ‘정치하는엄마들’의 집합행동을 조직하는 과정에서는 어떠한 변화로 이어졌을까? 단체에 참여한 회원들과의 소통 통로로서의 텔레그램의 역할은 유지되었다. 텔레그램 열린운영위원회는 회원들의 다양한 활동이 예고되고 실시간으로 중계되었고 그에 대한 응원과 격려가 함께 하는 공간으로 자리했다. 동시에 기자회견 등 단체 행사의 참여자를 조직하는 공간으로서 여전히 유의미했다. 특히 레거시 미디어와 제도적 공간의 공적 무대에서 ‘정치하는엄마들’의 부상을 이끌었던 사립유치원 회계비리의 이슈화와 유치원 3법의 제안, 어린이 생명안전보호법안 제정, 그리고 급식비 인상과 같은 정책 변동 과정에서 회원들의 문자메시지 보내

기와 온라인 상의 캠페인(SNS 인증샷과 해시태그)이 조직되고 공유되는 공간으로 의미를 지녔다. 열린운영위원회 텔레그램채팅방은 초창기 사적 토로의 공간으로서의 성격은 약화되었으나 후면에서 집합행동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역할은 여전히 유지되었다.

디지털 백스테이지 내에서 열린운영위원회가 공적 공간의 성격을 띠었다면 소모임 공간은 회원들에게 상대적으로 사적이면서 보다 낯 것 그대로의 대화가 일어나는 공간이 되었다. 열린운영위원회 공간에 비해 자신과 보다 유사한 관심사를 지닌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서, 소모임 방에서는 때로는 열린운영위원회 공간에서 미진했던 부분이 다시 논의되기도 했다. 또한 특정 이슈에 있어 열린운영위원회의 논의와 소모임 참여자들이 다른 결을 나타난 경우, 소모임에서는 감정적인 토로와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함께 나타났다.

동시에 소모임의 존재는 ‘정치하는엄마들이 제기하는 의제와 활동의 다양화로 이어졌다. 소모임별로 새롭게 의제를 발견하고 별도의 활동을 조직하기도 했는데, 돌봄팀에서 2020년 초 초등돌봄길라잡이를 만들거나 성명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활동 과정에서 집합행동의 양식인 ‘이어달리기’를 통해 집단 모성이 다시금 실행되기도 했다. 2020년 5월 ‘정치하는엄마들 돌봄팀’은 돌봄교실 법제화와 관련된 성명서를 작성했는데, 돌봄방(현재 초등돌봄방)에 있던 회원이 초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 다른 회원들이 직접 첨삭하거나 의견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완성한 후 사무국에서 이를 발표하였다. 이 성명서는 공표된 직후 열린운영위원회 방에 공유되었다. 조직할 수 있는 인적/재정적 자원이 확대되고, 다양한 소모임이 조직되고, 사무국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형성되면서 사립유치원 비리 이슈화 이후 ‘정치하는엄마들’의 의제와 성명서 발표는 더욱 빈번해졌다.

디지털 뒷무대의 성격이 보다 공적인(public) 성격으로 변모했지만, 단체

의 활동이 조율되고, 조직되고, 그 성과들이 가장 먼저 공유되는 공간, 일상의 의제를 유지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는 여전히 유지되었다. 디지털 뒷무대의 공적 성격 강화는 문제 해결자로서 ‘정치하는엄마들’의 집합적 정체성이 강해진 데 따른 역설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 나아가며

‘정치하는엄마들이 되기 전까지 양육의 문제는 본인이 가족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여겼습니다. 사회의 문제라도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무력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불합리하다는 목소리조차 낼 수 없었지만 함께 목소리 내고 제도를 개선해 보니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더 정치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인터뷰 참가자 1)

이 연구는 ‘정치하는엄마들’의 초기 3년의 활동에 주목하면서, 모성 사회와 돌봄에 대한 저평가가 공존하는 한국사회에서 이들이 어떻게 다양한 층위의 제도, 미디어, 일상 공간을 넘나들며 돌봄의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새로운 정치 주체로 부상했는지 탐구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기혼) 유자녀 여성들의 정서적 발화(‘엄마’가 되는 과정에서 겪는 힘듦, 분노, 무기력과 우울)가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공간에서 지속되어왔고, 이에 더해 ‘페미니즘 리부트’ 국면 이후 이들의 집합적이고 정치적인 실천이 시작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연구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2017년 정치하는엄마들의 등장은 돌봄 제공자로서 겪었던 차별, 아이들에게 충분한 돌봄이 제공되지 않는 사회현실에 대한 이들의 경험과 분노와 우울이 다양한 미디어와 일상의 공간을 넘나들며 응축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정치적 발화가 여성들의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터부시되고,

‘엄마’와 ‘아이’에 대한 혐오가 팽배한 사회 분위기에서 이러한 벽을 넘기 위해 용기를 내고 행동하려는 사람들이 서로를 호명하고 그에 응답하였다. 이들은 모성의 재전유를 통해 돌봄을 담당하는 모든 이들이 ‘엄마들’임을 천명함과 동시에 돌봄이 중시되는 사회로 나가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단체 안에서 상호존중의 문화와 신뢰관계를 형성하면서 ‘정치하는엄마들’로서의 집합적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디지털 뒷무대로서의 텔레그램은 이들이 물리적 거리와 시간적 한계를 넘어 각자가 지닌 자원을 동원하며, 일상의 문제를 공적 무대(레거시 미디어, 국회, 지방정부 등)에 역동적인 방식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해 준 기획 본부였다. 이를 통해 이들은 개인의 위치에서 대항하지 못했던 집단(사립유치원)에 함께 싸우고 제도 정치와 협상(negotiate)해 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행동이 제도적 성과를 얻으며, ‘정치하는엄마들’의 참여자들은 참지 않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D)’, ‘할 수 있는 우리’로서의 집합적 정체성을 강화했고 이를 바탕으로 단체 역시 성장하였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2018년 싸움이 법적/정책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참여자의 수가 증가함과 동시에 정치하는엄마들은 ‘나’, ‘나의 아이’의 문제로 치부되던 이슈를 ‘우리의 문제’로 함께 고민하고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이자 플랫폼으로 자리하게 되었다(최이숙, 2020). ‘정치하는엄마들’의 결성과 그 활동은 그들의 정관이 제안하듯 우리 모두가 돌봄의 책임자임을 인식하고, 돌봄의 윤리적 가치에 근거하여 모두가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 지 본격적으로 질문하고 개입하는 집단이 부상했음을 시사한다. 또한 그동안의 여성주의 정치실천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의제들이 새롭게 발굴되고 돌봄 민주주의의 사회를 향한 새로운 정치적 실천이 실행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팬데믹 이후 ‘돌봄 실천’이 이뤄지는 사회 구조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었다. 많은 여성주의 연구자들이 산업사회의 임금노동/성장

페러다임을 넘어 돌봄 실천을 포용하고 타자에 대한 감각과 인간-인간, 인간-비인간 사이의 상호존중을 실현하는 돌봄 페러다임과 함께 돌봄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당사자 정치를 표방하며, 돌봄 주체로서 ‘우리’를 호명한 정치하는엄마들의 목소리는 2023년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의미하다. 노동과 돌봄이 함께 할 수 없는 분노에서 출발한 이들이 제기했던 돌봄 불평등의 다양한 모습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이들의 목소리가 팬데믹과 포스트 팬데믹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모하였고, 상호존중의 문화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미디어를 넘나들며 ‘참지않고 행동하며 해결하는 우리’로서 형성된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가 요청된다. 특히 페미니즘운동을 비롯해 진보 정치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백래시, 새로운 운동의 의제와 실천에 대한 필요성, 노동과 돌봄이 여전히 양립하기 힘든 현실 속에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정치하는엄마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어떠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그리고 그 활동이 여성주의 정치실천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미정·임아영 (2018). 정치하는엄마들의 탄생.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가 이긴다-모성신화를 거부한 엄마들, 반격을 시작한다>(15~36쪽). 생각의 힘.
- 강혜원·김혜원 (2018). 소비문화의 전시와 자기서사 쓰기 사이의 줄타기: ‘맘스 타그램’을 통해 본 SNS 시대 모성 실천의 함의. <한국방송학보>, 제32권 5호, 5-34.
- 경향신문 (2017, 6, 17).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인간다운 시대를 위한 엄마들의 정치세력화’. URL: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706171506001>
- 국민일보 (2018, 12, 28). 정치하는엄마들’ 2개월 만에 회원수 3배로 증가. URL: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951544&code=61121111&cp=kd>
- 김수아 (2007). 사이버 공간에서의 힘돋우기 실천: 여성의 일상생활과 사이버 커뮤니티. <한국언론학보>, 제51권 6호, 346-380.
- 김수아 (2018). 국내 페미니스트 미디어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론적 검토 및 전망. <언론정보연구>, 제55권 3호, 5-46.
- 김신애·백운희 (2018). 거리에 나서다.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가 이긴다-모성신화를 거부한 엄마들, 반격을 시작한다>(85~103쪽). 생각의 힘.
- 김어준의 다스퇴이다 36회 (2018, 10, 27). URL: https://www.youtube.com/watch?v=_iKiZSudLXM
- 김예란 (2010). 감성 공론장: 여성 커뮤니티, 느끼고 말하고 행하다. <언론과 사회>, 제18권 3호, 146-191.
- 김지희 (2014). 주부 파워블로그 연구: 블로그를 통한 의견 지도자성 (opinion leadership)의 발현. <미디어, 젠더 & 문화> 제29권 2호, 5-40.
- 김현미. (2020). 코로나 시대의 ‘젠더 위기’와 생태주의 사회적 재생산의 미래. <젠더와 문화>, 제13권 2호, 41-77, DOI: 10.20992/gc.2020.12.13.2.41
- 내일신문 (2017, 6, 21). [인터뷰 | 윤정인·정치하는엄마들’ 운영위원] “엄마들 목소리 반영해 보육정책 만들자”. URL: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41396
- 미디어오늘 (2017, 6, 18). 엄마들 목소리를 들었다면 안철수가 단설유치원 발언을 했을까?. URL: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mod=news&act=articleView&idxno=137422&fbfB=783c61e3d91c77f829dcf57bcb98b8>
- 손희정 (2017). 페미니즘 리부트: 혐오의 시대를 뚫고 나온 목소리들. 서울: 나무연필.
- 이고은·장하나·조성실 (2018).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3인 대담. <정치하는엄마가 이긴다-모성신화를 거부한 엄마들, 반격을 시작한다>(239~318쪽). 생각의 힘.
- 이동후 (2013). 와이프로거의 “조금 다른 궤도”: 요리, 젠더, 그리고 블로그. <지

- 금, 여기, 여성적 삶과 문화>.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장하나 (2017, 3, 25). 엄마들이 정치에 나서야만 ‘독박육아’ 끝장낸다!. <한겨레>. URL: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87972.html.
- 장하나 (2017, 4, 7). 한국 엄마들 초음파검사 횟수가 두 배인 이유. <한겨레>. URL: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89812.html
- 정영희 (2020). 텔레비전 드라마 속 모성 판타지에 대한 여성주의적 고찰: KBS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64권 4호, 132-166.
- 정치하는엄마들 (2018). <정치하는엄마가 이긴다-모성신화를 거부한 엄마들, 반격을 시작한다>. 생각의 힘.
- 최은영 (2014). <한국 여성의 모성 기획과 균열에 관한 질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이숙 (2020). 모성에 대한 전유와 돌봄의 의제화: ‘정치하는엄마들’을 중심으로. <석당논총>, 제77집, 39-66.
- 프레스리안 (2017, 7, 7). 맘충? ‘한국판 서프러제트’로 기록될 겁니다 [인터뷰]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 공동대표. URL: <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162579>
- 한겨레 (2018, 10, 20). 비리 유치원 공개 뒤엔 ‘엄마들’의 추적 있었다. URL: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6628.html
- 홍남희 (2012). 초기 모성수행기 여성들의 스마트폰 이용. <미디어, 젠더 & 문화>, 제21호, 135-164.
- Bakardjieva, M. (2015) Do clouds have politics? Collective actors in social media l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18(8), 983-990.
- Bennett, W. L. and Segerberg, A. (2012). The logic of connective action: Digital media and the personalization of contentious politics.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15(5), 739-768.
- Castells, M. (2012). *Networks of Outrage and Hope: Social Movements in the Internet Age..* Cambridge; Malden, MA: Polity Press.
- Couldry, N. (2015). The myth of ‘us’: Digital networks, political change and the production of Collectivity.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18(6), 608-626.
- della Porta, D., & Diani, M. (2006 [1999]). *Social movements: An introduction.* Malden, MA: Blackwell.
- Gerbaudo, P. (2012) *Tweets and the Streets: Social Media and Contemporary Activism.* London, UK: Pluto Press.
- Gerbaudo P (2014) The persistence of collectivity in digital protest.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17(2), 264-268.
- Gerbaudo, P, & Treré, E. (2015). In search of the ‘we’ of social media activism: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on social media and protest identities.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18(8), 865-871.

- Jackson, S. J., Bailey, M., & Welles, B. F. (2020). *#HashtagActivism: Networks of Race and Gender Justice*. Cambridge, MA: The MIT Press.
- Jeong, E. & Lee, E. (2018) We take the red pill, we confront the DickTrix: Online feminist activism and the augmentation of gendered realities in South Korea, *Feminist Media Studies*, 18(4), 705-717, DOI: 10.1080/14680777.2018. 1447354
- Kittay, E. F. (1999). *Love's labor: Essays on women, equality, and dependency*. 김희강, 나상원 (역) (2016). <돌봄: 사랑의 노동-여성, 평등, 그리고 의존에 관한 에세이>. 서울: 박영사.
- Lynch, K., & Walsh, J. (2009). Love, care and solidarity: What is and is not commodifiable. In K. Lynch et al. (Eds.), *Affective equality: Love, care and injustice* (pp. 35-53). 강순원 (역) (2016). 사랑, 돌봄. 연대: 상품화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정동적 평등: 누가 돌봄을 수행하는가?> (64-89쪽). 파주: 한울아카데미.
- Melucci, A. (1989). *Nomads of the Present: Social Movements and Individual Needs in Contemporary Society*. (Eds), John Keane and Paul Mier, Philadelphia, PA: Temple University Press.
- Melucci, A. (1995). The process of collective identity. In H. Johnston & B. Klandermans (Eds.). *Social movements and culture* (pp. 41-63).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Nanabhai, M. & Farmanfarmaian, R. (2011) From spectacle to spectacular: How physical space, social media and mainstream broadcast amplified the public sphere in Egypt's 'Revolution', *The Journal of North African Studies*, 16(4), 573-603.
- Snow, D. (2001). Collective identity and expressive forms. In N. J. Smelser & P. B. Baltes (Ed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pp. 196-254). London: Elsevier Science.
- Taylor, V., & Whittier, N. (1992). Collective identity in social movement communities: Lesbian feminist mobilization. In D. M. Mueller & A. D. Morris (Eds.), *Frontiers in social movement theory* (pp. 104-129).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Treré E (2015) Reclaiming, proclaiming, and maintaining collective identity in the #YoSoy132movement in Mexico: An examination of digital frontstage and backstage activism through social media and instant messaging platforms.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18(8), 901-915.
- Tronto, J. C. (2013). *Caring democracy: Markets, equality, and justice*. 김희강 · 나상원 (역) (2014). <돌봄민주주의>. 서울: 아포리아.

최초 투고일: 2023년 10월 20일

게재 확정일: 2023년 12월 9일

최종 수정일: 2023년 12월 14일

Abstract

Connected Mothers, Amplified Voices, and the Emergence of New Feminist Subjects

Su Young Choi

(Associate Professor, Dept of Communication & Media Studies, Stentson University)

Yisook Choi

(Lecture Professor, Dept of Sociology, Dong-A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feminist practices of (married) mothers and their political engagement through media. They have been marginalized in scholarly attention to the media practices of feminist subjects despite the sociopolitical context of Feminist Reboot. Drawing on literature, media reports, participant observation of group chat rooms, and interviews with participants, this study analyzes the foundation and activities of the civic organization called *Moms for Politics*. The participants of Moms for Politics derived the momentum of their social movement from their newly acquired identity, from "moms" as vulnerable individuals who were sociopolitically marginalized to "political mamas" who have the power to focus on the issues of care and institutionalize solutions. In doing so, they creatively utilized various online platforms to overcome the material conditions of caregivers with limited time resources and physical mobility, while also navigating legacy media and institutional politics to pioneer and broaden the social discourse and create new conditions for political participation. This study demonstrates the potential for diverse feminist subjects to become political actors by traversing and weaving through various media spaces connected to private lives and public institutions.

Keyword: Politicalmamas, Feminism, Feminist movement, Digital media, Care